

# 중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무역분쟁 현황 및 중국의 대책

(리청강(李成鋼) 外經貿部 條法司 貿易法律處 處長)

## 1. 발표요지

### 1) 중국과 주요무역국간의 무역분쟁 상황 분석

#### □ 중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실시 기본 현황

① WTO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임.

- 1979년 8월 EU가 중국의 대EU 수출품 사카린과 소금류에 대한 반덤핑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29개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하여 422건에 달하는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는바, 중국이 수출하는 화공, 경방직, 토목축산, 기계전기, 의료기계 등 제품이 포함되었음.

o 그중 사례별 금액이 1억 달러이상인 안건이 15건임.

- 현재 중국에 대한 반덤핑이 가장 많은 국가는 EU로 90건이며, 미국 78건, 인도 35건, 호주 32건, 아르헨티나 29건 등임.

② 외국이 중국의 수출에 대하여 실시한 세이프가드는 6건으로 추정됨.

- 그중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완구, 한국에 수출하는 마늘, 일본에 수출하는 골풀(등심초), 버섯, 대파 등이 포함됨.

#### □ 중국 수출품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는 주요 원인

① WTO창설 이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예를 들면 관세와 각종 비관세장벽)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자, 많은 나라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WTO규범이 허용하는 조치를 사용하여 자국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있음.

- 어떤 의미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사례의 증가를 WTO규범의 실시에 따르는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 ② 많은 국가들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면서 중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차별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중국 수출품은 해외 반덤핑 소송에서 빈번히 고액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게됨.
- ③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견제심리 작용.
- 무역보호주의와 국내정치 수요 등은 모두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 됨.

#### □ 중국정부와 기업의 반응

##### ① 적극적인 응소 및 차별성 대우에 대한 교섭능력 강화

-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는 모두 일정한 법률 절차를 갖고 있음. 중국수출품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반덤핑 제소대상기업은 국외의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류를 강화하여 철저하게 변호해야 함.
  - o 반덤핑조사에서 소위 ‘비시장경제’ 문제에 대한 교섭은 중국정부가 중요시하는 중점 과제임.

##### ② 수출무역 질서에 대한 관리와 규범 강화 및 저가 덤플링 방지

##### 2)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실시 기본 상황

#### □ 반덤핑

- 중국은 1997년에 <반덤핑과 반보조금조례>를 반포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적으로 7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음. 대상 수입품은 다음과 같음.

신문지(종결),  
폴리에스테르박막(기 종결),  
스테인리스 냉연박판(기 종결)  
냉연 규소강(기 종결)  
염화 메탄(예비판정전 조사)  
폴리스티렌(예비판정전 조사)  
아크릴산(예비판정 끝남)

- 중국의 반덤핑 조사는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자평 함.

#### 세이프가드

- 중국은 현재 세이프가드의 시행과 관련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입 품에 대한 어떠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없었음.

#### 3) WTO가입에 대비한 중국의 법제완비 상황

-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협상은 이미 15년간 지속되었음. 현재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은 기본적으로 종결되고, 현재 다자간 협상단계에 있음.
- 중국은 WTO가입이후 국내 무역법률제도를 더욱 완비시킴으로써 WTO규범과 일치시킬 것임.
  - o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제도, 지재권보호 법률제도, 무역관리 법률제도를 WTO 체제에 맞게 개정함.
- 한편 중국은 WTO의 관련 규범에 근거하여 일부 새로운 법률제도도 수립할 것임.
  - o WTO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의 진일보 개선 및 법률제도의 투명도 향상이 기대됨.

